



## 축산단체, 학회 축산정책 건의

### 11개 축산관련 학회, 3개 축산단체

한국가금학회, 축산학회, 가축번식학회 등 축산 관련 11개 학회와 본 협회, 양돈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3일 산업기반이 위협 받고 있는 축산정책에 대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이미 주요 축산물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축산농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고, 축산농민은 축산업 존립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많은 불신이 야기시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축산학자와 축산농민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지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니 축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어 축산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은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산업이고 아울러 국토의 생산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국민의

식품을 생산하는 전략산업으로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의지를 확고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축산인은 한국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축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축산물의 수출입을 포함한 수급관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축산단체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축산업의 자주적 발전 노력을 정부는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 육성해 주시기 바라며 축산정책 결정과정에 축산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재정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각종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감소·개선 하므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업 및 축산관련 산업에 대한 원자재 영세율적용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산물가공업에 비롯한 모든 농축수산물가공업의 인허가업무는 모든 농축수산물의 수급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에 환원시키고 보건사회부는 본연의 업무인 식품산업의 위생관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축산 농민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축산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축산농민단체가 축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순된 제도개선 및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추업경영자협의회 개최

### 분양후 A/S 강화기로

건전한 중추농장 육성을 위해 본회가 주선하여 구성된 중추업경영자협의회 10월 월례회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성된지 얼마안된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농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수중추농장을 소개하고 협의회에서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충실하게 육성된 중추도 분양 후 관리상태에 따라 성적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판매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도 게을리해서는 않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후장기 개선토록 당부



10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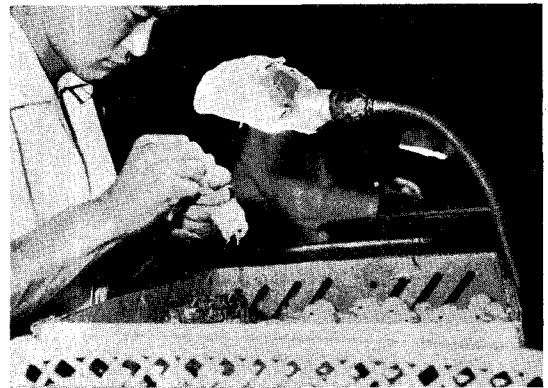
10월 들어 계란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지역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난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대구지역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구 계란이 타지역으로 싼값에 유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근본적인 생산팽임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난가하락시에는 농장에서 계란을 서둘러 출하하는 습성이 있어 계란가격이 인하될 때는 계란이 일시에 몰려나와 물량이 채화되므로 계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장에서는 정상적인 출하를 해야 더 큰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아직도 후장기로 계란을 출하하는 농장이 있으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후장기는 반드시 시정하여 계란 인도와 함께 장기를 받아 제값받기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 11월30일

#### 초생추감별사 경진대회 겸해



본회는 90년도 제2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과 초생추감별사 경진대회를 오는 11월30일 남명아리감별학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자격시험에서는 **추**감별사와 고등감별사 자격시험이 있다. 또 자격시험 종료후 기성감별사를 대상으로 한 초생추감별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부산·경남지부 제13회 추계체육대회

#### 회원 및 회원가족 4백여명 참가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손종현)은 지난 24일 김해 공설운동장에서 제13회 추계친선체육대회를 회원 및 회원가족, 업계관계자 4백여명에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회원간 유대강화와 협동정신 함양으로 지부조직 단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를

부산·경남지부산하 19개 분회가 참가하여 달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졌다. 통영 고성분회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 의창분회, 장려상 거제분회, 입장상 김해분회, 특별상은 웅천분회가 차지했다.

##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연말 계란값 하락 전망



10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UR과 관련하여 종계분야가 양계산업을 이끌어 가야할 사명감을 가지고 UR대책에 종계업자가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한국에 온 일본 채란양계 시찰단이 국내 양계산업을 넘나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했다.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 6월이후 입식수수 증가로 인하여 11,12월 계란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계란가격은 하락하리라 전망하였다. 육계는 여름철 혹서기에 종계 폐사와 생산성 저하 및 환우 등으로 10월 하순이후 육계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제3회 전국육계인대회 개최

11월 2,3일 경주 도투락월드에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는 11월2일과 3일 제3회 전국육계인대회를 경주 도투락월드에서 개최한다.

이번 육계인대회는 육계인의 화합과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 수입개방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육계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육계생산자 5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에서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이인형 과장이 “수입개방 대책” 발표와 토론을 갖고,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김정주 교수가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향”, 건국대 축산과 오세정 교수가 “육계인의 의식개혁”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제3회 축산인 체육대회 개최

22개팀 참가 축협중앙회 우승



축산신보가 주최한 제3회 축산인 체육대회가 지난 20일 농어촌진흥공사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를 비롯하여 22개 팀이 참가하여 축구, 배구, 릴레이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본회는 배구와 릴레이에 출전하여 예선에서 탈락하는 저조한 성적을 내었으나 각 참가팀들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축구와 릴레이에서 1등한 축협 중앙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 UR 농산물협상 저지 서명운동 전개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주도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본회와 낙농육우협회 등 회원단체들이 참가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협의회 회원 단체는 물론 농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오는 11월 11일 전국일원에서 가두서명 및 호보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서명운동은 그결과를 현재 관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한국 농업에 불리한 안을 강요하는 미국과 한국 협상대표에 전달함으로써 우리농민과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또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회가 협상내용에 비준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앞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역할을 일깨우고 농업을 회생시키는 운동을 벌이는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11월 11일 전국 동시가두서명 이후에도 각사무실 등에서 서명을 계속할 예정이다.

## 전남지부 임원 선진지 시찰 40여명 선진 양계시설 견학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 임직원 41명은 지난 23, 24일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선진양계장 시찰을 하였다.

선진기술을 배우고 회원간 친목을 위해 실시된 이번 시찰에서는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한 금강농장, 육계 자동화시설을 갖춘 경기축산과 서울경기 양계조합 안성집하장 등을 돌아보고 양계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롯데월드와 독립기념관 등의 관광도 함께 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본회에서는 이규성 전무와 강재명 과장이 참석하였다.